

2016년 회원 단합대회, 용인 ‘대장금 파크’에서



해마다 의정부 문화동산에서 열렸던 사우회 단합대회가 올해는 용인에 있는 '대장금 파크'(전前 드라마)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다. 사우회 창립일인 5월18일(수), 6대의 대형버스를 타고 온 243명과 개인적으로 도착한 20명을 합해 총 263명의 사우회원들이 인정전 앞마당에 모인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이연현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80년대 후반에 설계된 용인 제작단지가 30년이 흐른 오늘, 한류를 선도하는 웅장한 규모의 제작 공장이 되고 있다. 친정 MBC가 삼삼시대와 더불어 최고의 영상산업 메커로 성장한 모습에 우리 모두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는 '옥중화' 녹화 현장도 참관하면서 봄날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광한 사장은 김상철 감사가 대신 읽은 환영사를 통해 '1987년에 구입한 총 면적 87만평인 이곳 '대장금 파크'는 자산가치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앞으

로 방송 제작 시설 외에 리조트 등 휴양 레저시설의 건축도 가능해져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하고, '다채널시대 다음에 올 "알라 카르트(A La Carte) 시대" 즉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Device로 보는 시대'를 대비해 한류문화의 본산으로 우리 MBC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근수 드라마본부장은 ‘2004년 처음 궁궐을 짓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300억원 가량의 건축비가 투입되었고, 주말연속극 “옥중화”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류를 소개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들은 네 팀으로 나뉘어 셋트 견학에 나섰다. 29°의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다양하고 정교하게 건립된 옛 건물들을 관람하면서 옛날의 추억을 더듬기도 했고, 녹화가 진

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숨을 죽이고
후배들의 작업을 지켜봤다. 그러나 5만
여평에 지어진 350동의 세트장을 다 보
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아쉬웠

다. 1시 반에 MBC가 준비한 식당 세 곳에서 반주를 곁들인 점심식사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회원들은 다시 버스에 나눠 타고 3시쯤 귀로에 올랐다.



사우회 회장단, MBC임원진과 상견례

사우회 이연현 회장과 회장단은 5월 17일(화) 행주산성의 한 음식점에서 MBC 안광한 사장 및 임원진과 상견례를 가졌다.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갖는 이날 모임에서 안광한 사장은 '선배님들이 닦아놓은 터전을 삼양동에서 잘 꽃피우겠으며, 선배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연현 회장은 답사를 통해 'MBC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고 있는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지만

고진감래를 믿는다'고 임원들을 격려했다.

두 시간여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앞으로 선, 후배들이 교류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상호 발전을 기하자’는 다짐도 있었다.





2016 JUMF

**JEONJU
ULTIMATE
MUSIC
FESTIVAL**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전주종합경기장
B1B2F, 1000m Ticket Price: 12,000 - 24,000

2016 전주 **MBC** 캠페인
“청춘전복! 당신을 응원합니다”

| | | |
|--|---|--|
| <p><u>Aug. 5th (Fri)</u> THE ALLSTAR DAY & EDM</p> <p>DJ DOC 자이언티 & R.TEE 바비킴 / I.O.I 후레쉬보이즈 지기독 / 디올릭 에이대일리 DJ SODA</p> | <p><u>Aug. 6th (Sat)</u> THE BAND DAY & EDM</p> <p>YB 국카스텐 노브레인 크라임넷 나티 갤럭시 익스프레스 로열파이럿츠 DJ KOO</p> | <p><u>Aug. 7th (Sun)</u> THE LEGEND DAY</p> <p>밀젠코마티예비치 전인권밴드 부활 장미여관 and many MORE...</p> |
|--|---|--|

주최 · 주관 | 전주 **MBC** 후원 |  **한국음악저작권위원회**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umf.co.kr

예매  **인터파크** (<http://ticket.interpark.com>) **문의** 063.220.8288

낙시대회, 관리부문이 상을 휩쓸다



2016년도 봄철 낙시대회가 4월 29일 새벽 강화군 길상면 선두포 낙시터에서 31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1등은 28cm

의 붕어를 낚은 전용립(관리) 회원이 차지했다. 뜨거운 날씨에 황사까지 질게 낚 탓에 전반적인 조황釣況은 그리 좋지 않았다. 2등은 16cm를 낚은 송인외(관리) 회원, 3등은 15.5cm의 박태환(관리) 회원이며, 7수를 낚아 올린 김휴선(보도) 회원은 행운상을 차지했다. 사우회 이연현 회장이 격려차 방문한 이날 낙시대회는 흥국화재 이재훈 대리가 회원들에게 맛있는 오찬을 대접해 큰 박수를 받았다.

92명의 회원이 참가한 등반대회



봄철 등반대회가 4월20일 오전 북한산 우이령에서 열렸다. 이번 산행에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92명의 회원들이 참가했는데, 특히 김세중(관리 85세) 회원을 비롯해 노시창(전주 84세), 김해원(편제 83세), 신형창(보도 81세) 등 팔순이 넘은 선배 회원들이 완주하여 노력장을 과시했다. 전날 내린 비로 계곡물이 팔팔 흘러내려 마음을 상쾌하게 했으며, 지는 벚꽃 속에 곳곳에 핀 진달래꽃은 회원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줬다. 우이령 정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정담들을 나눴고, 점심식사 자리로

이동해야 하는 촉박한 시간을 아쉬워했다. 이연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가하신 회원님들 특히 선배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에 감사”를 표하고 “모든 회원들이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건강도 다질 수 있는 등산동호회 활동은 한층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한성 회장을 비롯한 등산동호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박한성 회장은 이윤성(여주농협 홍보대사)씨의 협찬을 받아 여주살과 참기름 세트를 참가 회원들에게 선물했다.

3社 사우회 바둑대회 첫 우승



사우회 바둑동호회(회장 고영일) 대표팀이 MBC, KBS, SBS사우회 회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반상의 실력을 겨루는 ‘제4회 3사社 사우회 정기 바둑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차

지했다. 3월21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송천기원에서 진행된 이번 바둑대회에서는 이연현 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응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둑동호회 김진홍 총무가 우승을, 임준석 회원이 준우승을 따냈다.

한편 최고위전에 출전한 대표팀은 아쉽게도 탈락했다. 이번 대회 출전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고위전: 이유호(편제) 이진섭(편제) ▶대표전: 김진홍, 임준석, 이선재, 최동운



사우회 회무규정 일부 조정

사우회는 주변 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면서 수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사우회 회무규정을 일부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회무규정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지급되는 경조금은 일부 삭감 조정됐으며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도 고쳐졌다. 또한 내년 이후 가입하는 회원들의 입회비와 평생회비 그리고 연회비도 인상 조정됐다. 다만 이미 선납한 회원들의 연회비는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사우회 사무처는 이번 회무규정 개정을 통해 “회비는 적게 내고 많

은 경조금을 받는” 불합리한 조항들이 고쳐짐으로써 사우회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5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번 개정작업은, 40만원의 평생회비를 내고 많게는 3백여만원의 경조금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를 고쳐 사우회 재정을 안정시킴으로써 후배들에게 큰 짐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이 널리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개정된 회무규정은 별표 참조)

| | |
|------------------|---------------------------------|
| 1. 회원의 자녀 결혼 | 축의금 100,000원 또는 화환(100,000원 상당) |
| 2. 회원의 회갑 | 축하선물 (5만원 상당) |
| 3. 회원의 고회 | 축의금 200,000원 |
| 4. 회원의 팔순 | 축의금 100,000원 |
| 5. 회원의 구순 및 백수 | 축의금 100,000원 |
| 6. 회원의 사망 | 조의금 300,000원 근조기 설치 |
| 7. 회원의 배우자 사망 | 조의금 200,000원 근조기 설치 |
| 8. 회원의 부모 사망 | 조의금 100,000원 근조기 설치 |
| 9. 회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 | 조의금 100,000원 근조기 설치 |

제 20대 국회의원예 MBC 출신 9명 당선



4월13일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총 9명의 MBC 출신 인사가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 당 후보로 전주 丙 선거구에서 당선한 정동영 회원과 더민주당 박영선(구로乙) 회원은 이로써 4선 의원이 됐으며, 노웅래(더민주, 마포甲) 회원은 3선, 김성수(더민주, 비

례대표) 회원은 조선의원이 됐다. 이 밖의 인사로는 심재철(새누리, 안양 동안乙 5선), 한선교(새누리, 용인丙 4선), 신경민(더민주, 영등포乙 2선), 박광온(더민주, 수원丁 2선), 최명길(더민주, 송파乙 초선) 등이다.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釜山’ 개장

어린이 대상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KidZania 사장 진현숙-편제)의 국내 2호점 개장식이 4월 8일 부산광역시 센텀시티몰 4층에서 열렸다. 키자니아는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경험한 에듀테인먼트 브랜드로, ‘리얼한 도시 환경 안에서 진행되는 롤 플레이’를 통해 즐거움과 교육적 효과를 함께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키자니아 부산에서는 ▲스포츠 방송 센터(야구) ▲보트 조종 스쿨(해양레저)

▲포스터 디자인 스튜디오(영화) 등 지역적 특색이 담긴 이색 체험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산 및 영남권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키자니아 부산’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idzania.co.kr) 또는 콜센터 (1544-5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 · 조사

■ 팔순 ■

이병춘(관리)06/02 김재수(관리)06/07 李正五(관리)06/11 최남규(미주)06/14
형진한(보도)07/14

■ 고희 ■

김규서(보도)06/04 은희현(편제)06/11 최주완(전주)06/12 정광조(관리)06/15
김종오(보도)06/23 장두문(편제)06/23 박순성(관리)07/07 김충식(ANN)07/14

■ 회갑 ■

양성호(보도)06/02 백명순(ANN)06/04 김용관(편제)06/05 이석일(보도)06/18
김정로(편제)07/11 최삼규(편제)07/12 이경환(기술)07/16 배상무(기술)07/26

■ 결혼 ■

우윤근(고문)손자04/02 김창수(기술)아들04/09 양윤모(보도)장녀04/16
이의린(관리)장남04/23 신명현(업무)아들05/04 최현곤(기술)장녀05/07
장두형 · 김순홍(대전)부부 막내딸05/14 이재훈(기술)장녀05/21

■ 부음 ■

강호진(편제)모친상03/06 이병로(관리)장인상03/31 오성수(편제)장인상4/08
박정근(편제)모친상04/12 서은선(ANN)모친상04/13 구자걸(기술)모친상04/17
최화숙(ANN)시부상04/17 류종현(보도)빙부상05/01 한웅희(업무)부친상05/08
장상복(관리)부친상05/1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기태(관리)

3월22일(화) 지병으로 별세. 향년 73세. 1973년 MBC에
입사, 수송 관련 업무를 계속하다 1998년 명예퇴직했다.
최근까지 수송팀 출신 친목모임인 문우회 회장을 맡아 활
발한 활동을 해왔다.



홍순영(편제)

4월9일(토) 골수종으로 별세. 향년 74세. 1973년 MBC 미
술부에 입사, 세트 제작업무를 계속하다 1998년 명예퇴
직했다.



정재호(관리)

4월25일(월) 기스트암으로 투병 중 별세. 향년 69세.
1979년 MBC수송팀에 입사, 수송관련 업무를 계속하다
1998년 명예퇴직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 | | |
|---------|---------------|----------------|
| 金甲洙(관리) | 010-8955-3681 | 은평구 신사동 348-12 |
| 安澤鎬(편제) | 010-8997-2068 | 서초구 나루터로4길39 |
| 李昌源(관리) | 010-8955-0153 | 동작구 상도로 346-2 |
| 李壽鏞(보도) | 010-8991-4174 | 강남구 논현로 205 |
| 崔秉珪(편제) | 010-9105-2242 | 강서구 강서로 266 |
| 李然宰(보도) | 010-5384-0044 | 동대문구 약령중앙로13길 |

■ 평생회비 ■

| | | |
|--------------|--------------|--------------|
| 성경섭(보도)03/07 | 김갑수(관리)03/17 | 안택호(편제)03/21 |
| 이창원(관리)04/06 | 이수용(보도)05/04 | 최병규(편제)05/16 |
| 이연재(보도)05/16 | | |

■ 연회비 ■

2월 : 이상립(16) 이완수(16~17,80세납부끝)

3월 : 강현식(16) 강효복(16) 김기도(16) 김대수(16) 김선희(16)
김채영(16) 김희을(16) 노영인(16) 남궁미(16) 박민정(16)
박종순(16) 박찬순(16) 반주원(16) 방영희(16) 서상용(16)

서은선(16) 안종순(16) 안주희(16) 유순옥(14~16)
윤남현(16) 이기선(16) 이명순(16) 이인숙(16) 임국희(16)
정국록(16) 정영희(16) 정진도(16) 주규만(16) 진경현(16)
최운형(16) 최화숙(16) 황경자(16)

4월 : 권태환(16) 김승수(16~19) 김영면(16) 김종창(16~17) 김재현(16)
민경창(16) 박수명(15~16)신대근(16) 신해명(16) 양종남(16) 유무정(16)
이범수(15~16) 이양휘(16) 장두형(15~16) 정영웅(16) 최홍립(16)
한웅희(16)

5월 : 김관영(16) 김순홍(15~16) 김영기(16~19) 정종국(18~22)
조동근(15~16) 진성창(16) 황종휘(16)

후원금 : 이동윤(전 쌍용화재 이사, 4/11) 150,000

전화/주소 변경

| | |
|-----------|-----------------------------------|
| 편제 : 김관영 |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90번길 |
| 김세영 | 강서구 우현로 67 |
| 김우룡 | 강남구 압구정로 42길 78 |
| 김정환 |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67-31 |
| 김종연 | 010-5663-9871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천로 352번길 |
| 김정로 | 은평구 갈현로 17나길 14 |
| 김현중 | 마포구 상암산로 1길 52 |
| 김형구 |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
| 봉필구 | 양천구 신목로 14길 20 |
| 이석현 |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길25 |
| 이영삼 |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35 |
| 장근수 |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56 |
| 보도 : 고대석 | 서초구 신반포로15길 4 |
| 김강정 |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 |
| 장경철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2로 42 |
| 장영준 |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
| 조기양 | 영등포구 여의대로 6길 17 |
| ANN : 이명순 | 용인시 수지구 샘말로 134 |
| 기술 : 이기한 |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165 |
| 이석희 | 동작구 사당5동 |
| 이영철 |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5 |
| 원춘재 | 경기 김포시 풍무로 68번길 41 |
| 정태식 | 010-5214-1805 |
| 홍성권 | 구로구 신도림로 16 |
| 업무 : 김지현 | 010-5312-7483 |
| 박태지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97번길 101 |
| 관리 : 권재욱 | 010-5371-1195 |
| 경정수 | 010-5202-2784 |
| 김광배 | 서대문구 간호대로4길 |
| 박은숙 |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
| 성기정 | 송파구 문정로 83 |
| 송인의 | 구로구 오류동 |
| 이춘호 |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770 |
| 이하걸 |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
| 이한식 | 마포구 토정로 31길 24 |
| 양남중 | 010-7200-6820 |
| 전병욱 |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 329번길 5 |
| 최창업 | 인천 남동구 장자북로 43번길 9 |
| 최한상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번길 39 |
| 한순애 | 마포구 삼개로 33 |
| 춘천 : 강 건 | 춘천시 사북면 솔바우1길 163 |
| 전주 : 염재용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100 |

회/원/동/정



김강정(보도)

이끌고 있다.

20여명으로 구성된 '문보산'(문화방송 보도사우 산악회) 회장으로서 매월 둘째 목요일에 청계산 산행을



송재중(보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2011년 3월부터 보도출신 10여명으로 구성된 당구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6시간



차경호(보도)

와 기사 작성론'을 강의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번 학기부터 부산동의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한다.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에게 '취재



정흥숙(ANN)

6월 7일(화) 압구정동 세실 아트홀에서 '유리디체 아카데미 창립 7주년 기념 음악회'를 주관한다. 유리디체 아카데미 회장인 정 회장은 음악회와 함께 직접 시 낭송도 할 예정이다.

6월 7일(화) 압구정동 세실 아트홀에서 '유리디체 아카데미 창립 7주년 기념 음악회'를 주관한다. 유리디체 아카데미 회장인 정 회장은 음악회와 함께 직접 시 낭송도 할 예정이다.



김택곤(보도)

4월 1일 전주방송(JTV)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전주가 고향으로 이미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전주방송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4월 1일 전주방송(JTV)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전주가 고향으로 이미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전주방송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윤영무(보도)

3월부터 제너시스BBQ 그룹의 부사장 겸 창업전략연구소장을 맡아 회사를 소개하는 '1분 뉴스'를 직접 제작하여 각종 온라인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3월부터 제너시스BBQ 그룹의 부사장 겸 창업전략연구소장을 맡아 회사를 소개하는 '1분 뉴스'를 직접 제작하여 각종 온라인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서경주(편집)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3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술강좌를 주관한다. '현대미술과 디자인' '고테와 이탈리아 예술' '시와 미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서울시립미술관과 공동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3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술강좌를 주관한다. '현대미술과 디자인' '고테와 이탈리아 예술' '시와 미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고준호(업무)

2월 12일 쌍둥이 손녀를 맞아 요즘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인사 받기에 여념이 없다. 쌍둥이 손녀의 이름도 '아윤, 아리' 라고 예쁘게 지었다.

2월 12일 쌍둥이 손녀를 맞아 요즘 주위 사람들로부터 축하인사 받기에 여념이 없다. 쌍둥이 손녀의 이름도 '아윤, 아리' 라고 예쁘게 지었다.

창녕 昌寧 탐방행사를 마치고



이현우 (ANN)

지난 4월11일,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주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인 영원무역(North Face)초청으로 진행된 1박2일 일정의 '창녕 昌寧 탐방행사'에서 사우회 남녀 아나운서 회원들과 특별 초청된 PD 회원들은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 우리는 영원한 아나운서다"라는 표제 아래 한국아나운서클럽 임국희 회장이 아나운서들의 단합과 친

지난 4월11일,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주관,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업체인 영원무역(North Face)초청으로

목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지만, 아나운서 회원들 외에도 (사)한국방송신문연합회, KBS사우회, 전 TBC출신방송인, 대구, 전주, 대전, 청주 등지에서 아나운서, 기자, PD로 근무하던 방송인들도 초청, 모두 50여명이 관광버스 2대로 여행하면서 친교와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탐방 첫 날, 일행은 영원무역대구공장 시찰, 창녕 성씨 고택 방문, 우포늪 관광, 창녕박물관 견학, 척경비, 고분군 등 가야와 신라의 유적지를 돌아보았고, 저녁에는 지방문화재로 등록된 한옥 기와집에서 옛 정취를 느끼며 과거 방송 현장의 애

기들로 웃음꽃을 피우며 하룻밤을 보냈다. 정연호, 이현우, 이형균 회원은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옛날 아나운서 숙직 근무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일 아침 방송 핑크내지 않게 시계 3개를 잘 맞추어 놓고 자아지" 하며 그 때 그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탐방 둘째 날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둘러보고 점심식사를 한 후 서울로 향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우회 임국희, 정흥숙, 윤희자, 김채영, 정연호, 안종순, 박민정, 이현우, 이형균, 남궁미 아나운서 회원들과 편집부문의 이기호, 서경주, 박찬순 회원들이 함께 했다.



윤희자, 김채영, 정연호, 안종순, 박민정, 이현우, 이형균, 남궁미 아나운서 회원들과 편집부문의 이기호, 서경주, 박찬순 회원들이 함께 했다.

아호 雅號 코스프레



김철호 (보도)

조선 최고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는 믿기지 않게 무려 500여개의 아호雅號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사는 변화무쌍한 그의 서체만큼 이나 아호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했다.

귀양살이 중엔 노구老龜, 공자를 생각하며 동국유생東國儒生, 불자를 생각하며 아미타, 취흥이 도도해지면 취옹醉翁, 식사 중엔 백반거사白飯居士, 이런 식이었다.

아호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해왔다. 중국 송, 당대부터 쓰던 것을 우리 선비들이 본따서 코스프레한 것이다.

옛부터 양반들이나 연세가 많은 어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시했다.

조선 최고의 서예가 추사 김정희 秋史 金正喜는 믿기지 않게 무려 500여개의 아호雅號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사는 변화무쌍한 그의 서체만큼 이나 아호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했다.

그래서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호號나 자字를 지어 불렀다. 양반들은 호를, 평민들은 자를 선호했다. 호와 자를 함께 쓰기도 했다. 호는 주로 스승이나 친구가 지어주고 본인이 직접 짓기도 한다. 고향의 산수에서 따오기도 하고 인생철학이나 지향하는 신조를 반영한다.

핸드폰 카톡에 '가솔'이라고 올려놨더니 몇 사람이 물어와 자작自作 호라고 알려줬다. '무슨 뜻이냐'고 또 물어 '비주류'라는 뜻이라고 말해줬다.

'가솔'은 변두리 소나무를 의미한다. 굵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가솔은 기와집 기둥감으로는 못자리지만 바람을 넉넉히 받으며 산을 지킨다. 일생을 통해 한 번도 주류사회에 발붙여 본 적이 없어 자조하는 의미로 지은 것이다. 세상에 무슨 여한이 아직도 남아 호까지 그렇게 지었나 싶어 혼자 웃는다. 절친인 보도국 OB 안재기 인형仁兄은 퇴직 후에도 한달 수입이 천만 원이라고 해서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농반 진반으로 별칭을 '월천'月千으로 부르기에 아예 아호를 '월천'(月泉, 달이 드리워진 샘)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의했다. 본인도 흔쾌히 승낙해 요즘은 그렇게 부른다.

저명인사중 내가 가장 으뜸으로 치는 아호는 시인 서정주의 '미당'未堂이다. 부르기도 시처럼 아름답고 뉘앙스도 시인답다. 얼마 전 타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태어난 섬 거제도과 정치적 고향인 부산의 한 글자씩을 따서 '거산'巨山이란 아호를 쓴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서울 동대문구가 정치적 입지인 고흥문 전 국회부의장은 동대문의 본래 명칭인 '흥인지문'興仁之門을 빌어, 이름은 '흥문', 호는 '인지'로 불렸었다. 연고지 유적에서 따온 이름과 호지만 기발하다는 생각이 든다.

가야금의 인간문화재 황병기 명인은 아호를 거부한다. 이름 석자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무슨 호 같은 걸 갖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는 죽은 후에도 무덤이나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당부해 왔다.

"꽃이나 이슬처럼 곧 사라져 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요. 사라져 가는 것 중 음악은 가장 순수한 것입니다." (황병기)

음악은 사라져도 악보가 남는데 필부匹夫는 사라져서 무엇을 남기게 될지...

매화 향기



김 휴 선 (보도)

영국의 시인 T.S. Eliot은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죽은 땅에도 라일락꽃을 피워내고 추억과 욕망이 뒤섞이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이 시는 학창시절에 한두 번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렇다. 4월은 긴긴 겨울잠에서 잠자던 만물이 솟아나는 계절이다. 모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다.

일 년 중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는 매화꽃을 보기위해 우리 부부는 지난 3월 말, ‘광양매화마을’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2시간여 만에 구례구역에 내렸다. 섬진강을 따라 한 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화개장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아침 재첩국으로 식사하고 ‘광양 매화마을’로 향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화합의 다리’를 건너 버스는 섬진강을 끼고 달린다. 아침 일찍 지리산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김용택의 시처럼 ‘시누대’

앞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버스는 동네 어귀마다 정차한다. 일터로 나가는 사람 혹은 장터로 나가는 사람, 대부분 노인들이 버스에 오른다.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들의 억센 사투리는 듣기에도 싫지 않다. 도로 양쪽 주변에는 살구나무, 앵두나무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까지 한데 어우러져 무릉도원이 부럽지 않다.

아침 7시가 조금 지나서 ‘광양 매화마을’에 도착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흰 눈이 내린 것처럼 온 산이 하얗다.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시원하게 부는 바람에 꽃잎이 흩날린다. 야트막한 매화나무는 터널을 이루고 오솔길을 따라 꽃길은 이른 아침이라 고즈넉하다. 안사람과 나는 매화향기에 흠뻑 취했다. 올라가는 길 옆에는 임권택 감독이 영화를 찍었다는 ‘취화선’ 촬영장이 나온다. 시골 초가집을 떠나 옮겨 놓은 듯하다. 집 주변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진사들이 작품사진을 찍느라 호흡을 멈추고 조용히 앵글을 맞춘다. 주변에 있는 큼직한 자연석(自然石)에는 좋은 글들이 많이 새겨져 있다. 마음에 와 닿는 범정스님의 글

한 귀 절을 소개한다.

“무소유란 아무 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할가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富)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매화 발 중간쯤 올라가다보면 ‘홍쌍리 농원’의 트레이드마크인 2천여 개의 향아리가 눈길을 끈다. 집 뒤편에는 왕대발 숲도 보인다. 둘레가 세 뺨 정도나 될까? 높이만도 20m가 넘는 큰 대나무 숲이다. 향아리는 매화를 숙성시키는 일종의 매화 장과 김치를 담그는 그릇이라고 한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사이 벌써 3시간 가량 지났다.

산채 비빔밥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매화나무 밑 야생화가 피어있는 풀밭에서 한참을 쉬었다. 저 멀리 지리산이 손에 잡힐 듯하다. 매



화 발 아래로는 섬진강물이 흘러 한쪽의 동양화처럼 보인다.

청매실 농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매실단지(圃地)다. 홍쌍리 여사는 명인(名人)으로 인정 돼 큰 사업가가 됐다. 광양매실을 제일로 알아주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다. 홍쌍리 농원은 6만여 평의 대지 위에 4만여 그루의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웃 산들도 매화나무 밭이다. 발 아래로는 전북 진안군 팔공산에서 발원한 섬진강이 굽이굽이 흘러 매화밭과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 이제는 ‘섬진마을’보다 ‘매화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1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다고 한다.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桃園결의’를 했다면 우리 부부는 ‘매화원梅花園결의’를 하고 다음 행선지인 여수로 발길을 돌렸다.

재미없는 사람의 사는 재미



조 성 식 (업무)

〈사우회보〉로부터 ‘살아가는 이야기’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동안 세월도 환경도 너무나 많이 변했으니 소개할 내용이 없을 리 없고, 개인적인 이유로 글쓰기를 그만 두었지만 수필집도 한 권 썼던 경험이 있으니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겠고, ‘이나이회(?) 회원’인 요즈음이니 시간이 없다는 것은 더더욱 이유가 될 수 없으니 말이다. 문제는 ‘살아가는 재미’를 써야 하는데 현재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는 재미가 많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마는, 내 경우는 ‘별 생각 없이’ 크게 환경을 바꾼 탓에 재미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회사를 정년퇴직 하고 순식간(?)에 8년이 지나가 버렸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경구가 현실로 다가옴을 새삼 느낀다. 더구나 지

난 해 후반에는 ‘전철 경로카드’도 받았다. 이제 몇 년 후면 고희(古稀)를 맞는다.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최남단 A시, 그 A시의 최남단 K면. 동쪽으로는 “생거전천”의 충북 진천과 맞닿아 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발달되어 도시와 농촌의 구별이 없어진 요즈음이라 하지만 몇 집 되지도 않는 마을에서 낮은 산길 800m를 걸어 올라와야 하니, 모양은 양옥집으로 지었지만 분위기는 ‘깊은 산속 웅달샘’ 옆 산골집이다.

“공기 좋은 데서 자급자족 하실 수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노년 건강에 아주 그만이지요?” 귀촌했다는 소식에 구경삼아 다녀간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물론이고, 아랫마을에 사는 사람들 까지도 만나면 이런 인사를 건넨다. 옳은 얘기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공기 좋은 데...’라는 얘기 외에는 옳은 것이 없으니 그것이 문제다.

나는 농사의 ‘ㄴ’자도 모른다. 조상 대대로 서울을 떠나 본 적도 없고, 손에 흙 닿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리

고 아름다운 별을 보며 밤길을 걷는 낭만적인 어떤 남자와과는 다르게 어두운 밤에는 무서워서 잘 다니지도 못한다. 물론 그렇게 별밤을 걷는 남자들도 다소 허세를 감춘 위선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나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뿔하러 시골로 왔냐. 웬만하면 조만간 다시 올라와라”고 진심어린 충고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이유야 살아온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아야 하니 줄이기로 하고, 문제는 앞으로의 삶이라 하겠다.

어쨌든 ‘엮일리진’ 시골생활.

“서울에 살았더라면 그 동안이 더욱 재미있었고 앞으로의 생활도 재미있어 질 수 있을런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편집자의 의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의 ‘귀촌 상황’을 재미있게 소개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앞으로 ‘귀촌계획’이 있는 사우여러분께서는 현재 귀촌

4년이 된 우리가족의 귀촌일기를 재미있게(?) 참고하시기 바란다. 결국,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다.

사는 재미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지나가 버린 삶의 세월’이요, 생노병사의 ‘피하기 어려운 순서’ 때문일 것이다. 내가 재미있어 지는 방법 밖에 없겠다. 내가 농사를 짓는 수밖에 없겠다. 최근에 나는 이러한 나의 생각을 도와주시는 우리 사우회 회원들의 노력과 기술을 〈사우회 카페〉에서 발견하고 고맙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주 참조한다. 더구나 컴퓨터와 휴대폰을 누구보다 잘 다루지 못하는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고회를 훨씬 넘으셨는데도 자주 새롭고도 유익한 내용을 게재하시는 선배님들의 노력과 기술은 정말 배우고 존경하고 싶다.

‘내가 아름다운 별을 보며 밤길을 걸어가야 한다’

오늘도 사우회 카페를 뒤적이며 잠기는 생각이다.

MBC 예능PD 열전 列傳 (I)

드라마PD들은 술자리에서 호흡이 길다. 발동이 걸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말을 느리고 어렵게 한다. 그러나 예능PD들은 단순하다. 술자리에서 호흡이 빠르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차, 2차가 빨리 진행된다. 예능PD들은 오래 썰을 푸는 것을 싫어한다. 이론을 싫어한다. 간단하게 얘기해야지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술을 짝으로 갖다놓고 마신다. 예능PD들은 자기들끼리 '우리는 톨아이'라고 자처한다. 파격이 심한 PD가 대작大作을 만든다는 뜻이라.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예능의 거장들과 그 뒤를 이은 '톨아이'를 한 사람씩 추억해보자.



유수열 (편제)

MBC 예능에서 국악 프로그램을 정립한 분은 **진필호**PD다. 1961년 군대를 제대하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하여 처음 배치된 곳이 KBS-TV 준비국이였다. 거기에서 처음 맡은 일은 서류 정리를 하는 서무였지만 잠재된 끼를 어찌 할 수 없었던지 결국 PD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PD로 입봉하기 전 진필호AD는 한 주에 무려 아홉 개 프로그램을 해냈다. 그가 얼마나 선배들의 입맛에 맞게 AD를 잘 했을지 상상이 간다. 1964년, 개국한 TBC-TV로 옮겨 〈가락찾아 삼천리〉라는 국악프로를 만든다. 지금도 국악계에서는 〈가락찾아 삼천리〉가 '국악프로의 대명사'라고 인정한다. 삼성 이병철 회장도 〈가락찾아 삼천리〉는 꼭 시청했다고 한다. 1969년 MBC로 옮긴 그는 국악프로 〈내 강산 우리 노래〉 〈우리 춤 우리 가락〉 〈흥겨운 가락〉,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의 국악쇼 〈쇼11〉등을 만들어 국악의 대중화에 선구자 역할을 한다. 진필호PD의 정년퇴임식에는 한국의 국악인들이 총 집합했었다.



그는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배재고 교 6학년 때 6.25가 일어나 온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의예과 2학년 말 학업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다. 나는 가끔 진필호 선배가 '의사가 더 좋은가 PD가 좋은가' 생각해보지만 역시 PD가 된 것이 더 자랑스럽다고 확신한다. 그의 동생 진필홍 KBS-PD는 조용필을 길러냈고 일본방송계에서 더 유명한 가요PD였다. KBS 〈100분쇼〉를 연출한 예능의 대가였는데 아쉽게도 작년 4월, 71세의 나이에 형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누가 뭐래도 진필호PD와 진필홍PD는 한국이 사랑하는 '형제 예능PD'다.

충주MBC사장을 역임한 **장두원**PD는 국군방송 PD로 방송에 입문하여 제대 후



TBC-TV에 공채1기로 입사한다. 전우중PD, 이증PD가 동기생이다. 그는 '설득의 달인'이고 '섭외의 달인'이다. 예능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장두원PD에게 맡기면 해결된다. 어떤 분들은 그의 해결 방법이 '자꾸 반복해서 설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포기하고 만다'고 말한다. 그래서 별칭 "재방송"이라고도 했다. 여하튼 문제 해결에는 당할 자가 없었다. 아무리 섭외가 어려운 스타라도 그이 앞에서는 손을 든다. 그는 〈행운의 고스트〉 〈월요음악회〉 〈히트가요 앨범〉 등의 PD였다.

1973년 12월, MBC와 TBC사이에 〈배삼룡 쟁탈전〉이 벌어진다. 당시 배삼룡은 최고의 인기인이었다. 1969년 MBC는 개국과 더불어 코미디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로 시청률을 장악한다. 그러자 TBC는 MBC 김경태PD와 작가들을 스카웃해서 〈좋았군 좋았어〉를 만든다. 그래서 유수열PD가 〈웃으면 복이 와요〉를 맡았는데 TBC는 유수열에게도 스카웃 제안을 한다. 조건은 13평 주공아파트 한 채였다. 그때 TBC로 갔으면 그 후 80년 언론통폐합으로 KBS로 넘어갔고 그곳에서 적당히 있던지 아니면 SBS가 생길 때 넘어갔던지 했을 것이다. 아무튼 TBC는 배삼룡을 스카웃하기 위해 〈배삼룡 쟁탈전〉을 벌인다. 소문에 의하면 이병철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백지수표로 배삼룡을 잡아오라고 했단다. TBC측의 총 지휘는 당시 장종선 미술국장이 맡았다. 장 국장은 거구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방송인이다. TBC는 전사적全社적으로 공세를 폈지만 MBC는 장두원부장의 지휘로 (전사적이 아닌) 예능파트만 나섰다. 나는 처음부터 이 싸움의 결말은 장두원 선배의 승리라고 확신했다. 왜? 장두원 부장의 설득에 이길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빛이 워낙 많아 돈이 필요했던 배삼룡은 당시 MBC에만 출연하고 있었는데 TBC의 〈좋았군 좋았어〉에도 출연하겠다고 약속해버렸다. 말하자면 배삼룡의 '계획된 의도'에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장두원부장의 작전은 〈좋았군 좋았어〉 녹화스튜디오에 배삼룡이 아예 가지 못하도록 원전봉쇄한다는

것이였다. 원래는 전속금을 주든지 해야 하지만 돈을 안 들이고 물리적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PD들을 동원해 배삼룡이 TBC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일단 배삼룡은 MBC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반면 TBC는 무슨 수를 쓰든 배삼룡을 데려가고 7명의 PD와 20 여명의 미술국 직원들로 공격조를 꾸렸다.

양측이 만난 곳은 을지로 5가 수도예식장 앞이였다. 배삼룡은 당시 수도예식장에서 동아방송의 〈명랑스테이지〉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가 동아방송의 녹음을 끝내고 나오자 마자 양방송사의 직원들은 〈배삼룡 쟁탈전〉을 벌인다. MBC팀이 먼저 도착했었는데, MBC 방어조에는 김행신, 민창환, 배상석, 유수열 4명의 PD들이 근처 수도예식장 옆 골목에 있는 목재상에서 각목을 하나씩 들고 와서 차 안에 있는 배삼룡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다. 늦게 도착한 TBC 돌격조에는 유규만, 이영식 외 5-6명의 PD들과, 미술부 직원 3개조 20여명. 서로 치고 받고 싸움이 벌어졌다. MBC 4명의 PD 대 TBC 30여명의 싸움이었다. PD들끼리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새끼 저새끼' 쌍욕을 하면서 싸움을 벌였다. MBC 4명은 절대적으로 수가 적었지만 육과 각목을 사용해 필사적으로 배삼룡을 사수했다. 일간, 주간 신문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취재경쟁이 벌어졌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다.

목재상골목에서 육박전이 진행되는 도중 도착한 장두원 부장은 장종선 국장을 만나 일단 배삼룡의 집에 가서 협상하기로 하고 휴전에 들어간다. 수도예식장을 출발, 도착한 곳은 동부 이촌동 한강아파트였다. 양방송사의 30여명의 직원들은 아파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TBC 장종선 국장과 MBC 장두원 부장은 양측 대표로 배삼룡의 아파트에 올라가 협상을 벌인다. 오랜 담판 후 밤늦게 난 결말은 MBC의 승리였다. 배삼룡이 MBC만을 출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배삼룡의 아파트 안에서 장씨 성을 가진 두 사람과 배삼룡만이 있었으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MBC가 승리하는 것으로 〈배삼룡 쟁탈전〉은 막을 내린다. 협상의 명수 장두원PD의 승리였다. 아마도 장두원부장의 재방송 전술에 장종선국장이 손을 들어 버린 것이리라. (편집자가 장두원 선배에게 확인한 바로는, 일찍이 장 부장이 장 국장의 아들을 신일고교에 입학시켜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장 국장은 처음부터 장 부장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 '로맨티스트 PD'인 **구종희**. 그 분 또한 보직에는 관심없이 오직 프로그램 연출에만 전념한 PD다.

남해 거제도 근처 흙냄새, 자연의 냄새가 물씬 나는 시골에서 소년기를 보낸 그는 명문 진주중,고등학교 출신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운동과 노래를 즐기던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불행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그에게 찾아온다.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기에 갑자기 뇌염을 만나는데 대단히 세게 만난다. 죽음의 문턱에서 헤맸다. 죽을 거라고 다들 포기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다. 사경을 헤매며 죽음의 문턱에 선 그에게 뜻밖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가 살아난 것이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허약한 몸으로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었다. 2년간 재수를 한다. 그리고 고려대 철학과에 진학한다. 활달하던 성격은 사라지고 음울하고 내성적인 철학도가 되어 버렸다. 현실과 자아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패배를 경험하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다. 4학년이 되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논하고 문학을 논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은 그를 따라다니고, 그를 이 시대 마지막 로맨티스트로 만들었다.

그의 방송입문은 1964년 12월 부산 TBC에서 출발한다. 그가 연출한 첫 프로그램이 〈낭만의 세레나데〉다. 이 프로를 통해 쇼와 국악등 주로 음악과 춤으로 이뤄지는 쇼연출가로 성장하게 된다. 1970년, 부산 TBC에서 서울의 TBC동양방송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부산을 떠날 때 집을 정리해서 마련한 돈으로 마담들을 줄 세워놓고 외상술값을 나눠

왔다. 그래서 부산을 떠나던 날, 술집 주인과 마담들이 프랭카드를 걸고 꽃다발을 들고 나와 환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은 또 있다. <전주대사습놀이> 방송을 위해 전주로 출장 간 구종회PD가 여관에 짐을 풀 뒤 스태프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던 중 소변이 급해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해결한 뒤 취중이고 밤중이라 더듬거리며 방에 들어가서 잠전히 잤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 여관주인의 고교생 딸 방에 들어가 있었다. 다른 집 같으면 부모들이 난리법석을 했겠지만 다행히 단골 여관이고 주인이 구종회PD의 사람됨을 잘 아는지라 전후좌우 사정을 이해했다는 오싹한 사건도 있었다.

TBC에서 <TBC향연>을 비롯해 <코미디 럭키세븐> <쇼! 코리아나> 그리고 MBC에서 <내 강산 좋을시고> <토요일 토요일밤에> <노래하는 중계차> 등 수많은 프로그램을 연출한다. 1982년 <전주대사습놀이>의 첫 연출을 맡았고, 이어 <학생대사습놀이>도 직접 기획 연출을 맡는다. 2015년에도 76세의 몸을 이끌고 <전주대사습놀이> 방송에 참여하여 전주에서 심사와 현장 진행을 맡았다. 대단한 일이다. 정년퇴직 하고 난 후에도 현업에서 일하는 후배들의 결혼, 초상 등 경조사를 일일이 다 챙긴다.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마지막 로맨티스트, 그가 바로 구종회PD다.



영상제일주의 쇼 연출자 **전우중**. 그는 새로운 연출, 새로운 영상미를 철두철미하게 추구했던 PD다. 보직에

아예 관심이 없었던 천상 PD다. 매력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쇼 연출자로서 담배를 피우는 품이나, 걸어가는 품이나,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진행하는 품이나, 프로그램 연출하는 품이나 모든 게 무슨 예술작품처럼 독특한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의 카리스마에 놀려 아무도 그의 앞에서 반기를 들지 못한다. 한번은 그가 “컷, 컷”을 외치며 연출하는 동안 인터컴으로 들려오는 카메라맨의 불평소리에 연출석을 떠나 “너, 꼼짝말고 거기 있어” 하고 스튜디오로 바람처럼 내려갔는데 그 순간 카메라맨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유명한 사건도 있다.

그는 <오란쇼>, <피아트쇼>, <MBC 그랜드쇼>, <토요일 토요일밤에> 등 주말 쇼 프로그램들을 연출했다. <토요일 토요일밤에>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500회가 넘도록 연

출한 기록을 갖고 있다. 과감한 기획과 치밀한 구성으로 무려 6개월 동안 혹독한 연습으로 만들어 낸 <김추자 특별쇼>가 방송되던 74년 어느 날, 거리에 차량과 인적이 그치고 다방마다 TV를 보려고 몰려들었던 기록도 있다. 그 해 한국방송대상 작품상과 연출상을 동시에 받았는데, 당시 쇼 프로그램이 방송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때였으니 가히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우중PD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TBC동양방송에 입사한다. 고등학교 시절 태권도와 럭비선수로 활동했지만 음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총무과로 배치를 받았다. 진필호PD가 KBS 서무과에 배치된 것과 같은 케이스다. 총무과는 기안이 기본이고 서류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글씨를 여자처럼 예쁘게 쓴다. 아주 멋진 여성체의 글씨다. 걸모습과는 영 다르다. 서류기안도 예쁘게 한다. 큐시트도 예쁘게 만들어낸다. 그런데 직장 초년생 총무과 직원 전우중은 사무실에 앉아있질 않고 시간만 나면 스튜디오의 쇼 프로그램 구경을 하러 갔다. 스튜디오의 음악소리에 끌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 결국 PD로 자리를 옮긴다. 입봉 후 만든 첫 프로그램이 당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아베크 노래자랑>이다. 코미디언 서영춘이 콧수염 부치고 MC를 했던 <아베크 노래자랑>은 연인들이 쌍으로 나와서 노래대결을 하는 예능프로였다. PD로 자리를 옮긴 전우중은 사실 음악의 ‘음’자도 몰랐다. 그리고 음악도 모르면서 음악프로를 한다는 것이 그의 자존심에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 총무로의 피아노학원을 찾아 어린이 피아노교본 바이엘부터 도~레~도~레~ 연습을 한다. 퇴근 후에는 방송사 피아노로 밤새 연습을 했다. 연습을 시작한지 일 년여 걸려 드디어 악보를 읽게 되고 피아노를 치게 된다. 연이어 기타연주도 하게 된다.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다. 더 나아가 작곡, 작사 공부를 시작한다. 그가 작곡, 작사한 곡은 이은하가 부른 <최진사댁 셋째 딸>과 김추자가 부른 <한 번 보고 왜 우나>, <이 밤이 가면>, <그대는 몰라>, <어제오늘 그리고 내일>, 김상희가 부른 <토요일과 일요일사이>, 김세환이 부른 <안녕 외로운 밤이야>, <별이 빛나는 밤에>등이고, 번안가요로는 <눈이 내리네> 등이다. <최진사댁 셋째 딸>은 이은하 보다 조영남이 더 많이 불러 히트한다.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전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낸 쇼 연출자 전우중PD.

나도 전우중 선배를 따르려고 피아노를 시도했지만 포기하고 기타로 바꿨다. 전우중 선배 흥내라도 내려고 늙은 나이지만 지금도 기타를 들고 교회 찬양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 1981년부터 2013년까지 32년동안 방송된 <뽀뽀>주제가. 이 노래의 작사, 작곡가 **이재휘**PD.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다. 청음(聽音)에는 귀신이다.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다. 노래도 잘 불렀지만 무슨 악기든 잘 다룬다.

음악가로 나갔으면 정명훈 같은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 음악공부에 나가 수상을 했고, 같은 학교 여학생과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다. 고등학교에서는 밴드부에 들어가서 음악공부를 했는데 이미 고등학생으로서 화성학을 마스터한다. 군대에서는 미8군 카툰사에 들어가서 서양음악을 공부한다. 서구대중음악의 리듬과 재즈, 소울 등의 이론과 실기를 공부했다. 그가 피아노를 칠 때 재즈리듬 터치를 하는 것은 이 때 배운 것이다. 그는 TBC-TV 어린이합창단의 지휘자가 되면서 방송과 만나게 된다. 어린이합창단 지휘가 너무 재미있었다. 이때 이미 <뽀뽀>가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모양이다. 1969년 MBC-TV개국과 함께 MBC 예능 PD로 자리를 옮긴다.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 <젊은 리듬>이다. 쇼킹할 정도의 자유 분명한, 살아있는 춤과 노래로 구성되었다. 당시 조연출을 했던 나는 한정진 부장이 연출하는 <OB그랜드 쇼>만 보다가 이재휘PD의 기막힌 연출을 보고 ‘으악’ 했던 기억이 난다. 흑백시절의 카메라를 가지고 온갖 화면 이펙트를 만들어 냈다. 와이퍼가 없었는데도 수동으로 와이퍼를 만들어 내고, 흑백 키(key)를 파서 화면재주를 부렸다. 날아가는 새도 만들어 냈다. 지금은 그런 화면의 이펙트가 컴퓨터그래픽으로 개발되었지만, 당시에는 초창기라 상상도 못할 영상연출을 한 것이다. 그는 1969년에 이미 45년 후에 영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수동으로 기막힌 화면을 만들어 내는 재주를 갖고 있었다.

<mbc그랜드 쇼>, <토요일토요일밤에>, <토토즐>, <청소년음악회>등 수많은 쇼 프로를 만들어 낸 이재휘

PD는 조용필에서 라흐마니노프까지, <뽀뽀>에서 <비목>까지 대중쇼와 클래식, 어린이프로를 넘나드는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가진 PD다. 여자들은 물론이고 남자들마저도 그가 피아노를 치면 그 분위기에 넋을 잃고 만다. 지금도 살롱같은 업소에서 그 아까운 피아노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다. 음악기획사와 매니저가 붙었으면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이재휘선배는 지금 어떤 꿈을 꿀까 가끔 생각한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노오란 레인 코트에 검은 눈동자...” 이어지는 곡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high on a hill it calls to me...”고교시절, 대학 시절 놀만큼 논 **심상수**PD. 대학생 때는 노래를 잘해서 학교축제가 있으면 이리저리 불러 다닌 캠퍼스 스타였다. 재치가 있어 노래 뿐 아니라 MC도 하면서 사람들을 웃겼다. ROTC 장교로 전방소대장을 했는데 장교훈련소에서도 그는 가수였다. 위문공연이라도 오면 심상수는 신중현의 “빗속의 여인”을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hound dog”을 다리를 부들 부들 떨면서 흥내를 냈다. 대단한 끼를 갖고 있는 PD다. 재치의 거장이자 순간의 판단이 빠른 심상수PD. 느린 유수열PD와 정반대 캐릭터다. 방송계에 널리 알려진 이름은 “심통”이다. 누가 불었는지 모르나 너무나 딱 맞는 별칭이다. 가수나 코미디언이 심통에게서 ‘가게’(X)를 3번 받으면 그는 영원히 ‘가게’를 먹는다. 예를 들어 지각을 3번 이상 하면 영원히 가게를 먹는다는 말이다. 가수나 코미디언을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이라.

그의 고향은 강원도 횡성이다. 양평에서 중학교를,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외대 영어과에 입학한다. 졸업 후 인천에서 영어선생을 잠시 하다가 청운의 뜻을 품고 MBC 입사시험에 합격하여 제1기 PD가 된다. 제1기 PD들은 너나없이 TV 개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책상위에서 쪽잠을 자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늘같은 선배 앞에서 “장교 출신, 캠퍼스 스타, 영어선생님 심상수”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당시에는 FD가 없었던 시절이다. 주변사방에 내가 시킬 사람은 하나도 없다. 조연출 심상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스태프들이 반말로 “야, 이거 치워” 그러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했다. “좀 있다가 치울게요”가 용납되지 않는 시절이었다. 웬 생방송은 그렇게

많은지 70%는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니 정신이 없었다. 조연출들이 너무 고생들을 하니깐 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현장진행요원으로 FD가 생겼다. 심상수PD는 주춤 9개의 프로그램 조연출을 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인물도 연예인처럼 생겼으니 그냥 가수가 됐으면 장교출신 학사가수라고 인기가 대단했을 것이라고. 이상벽도 ROTC출신 주간지 기자였는데 유명한 MC가 되었지 않은가. 나는 심상수가 그 이보다 훨씬 재능이 있다고 본다.

심상수피디는 〈후라이보이쇼〉, 〈크라운쇼〉, 〈노래하는 OB밴〉, 〈무궁화인가가요〉, 〈이밤을 즐겁게〉, 〈토요일 토요일밤에〉, 〈청춘만세〉, 〈일요일 일요일밤에〉, 〈비실이와 팡팔이〉, 〈MBC 버라이어티쇼〉, 〈MBC서울국제가요제〉, 〈MBC대학가요제〉등 수많은 쇼와 코미디프로를 연출한다. 그중에서도 그의 입봉작 〈무궁화인가가요〉는 그의 대표작이 된다. 대중가요의 차트형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금주의 인기가요〉로 발전하여 가요 발전에 큰 공적을 세웠다. MC는 당시 최고의 인기인 변웅전이나운서.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펄시스터즈의 〈님아〉 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그가 만들어 낸 〈청춘만세〉는 MBC 최초의 개그프로그램으로 많은 개그맨을 만들어냈다. 〈웃으면 복이와요〉 스타일의 전통코미디에서 〈청춘만세〉의 새로운 개그맨스타일로 바꾸는 역할을 했다. 김병조와 강석, 엄용수, 최병서, 황기순, 최양락 등 많은 개그맨을 배출했다.



MBC에 해결사PD가 있었으니 해병군악대 출신 **배상석**PD다. 드라마파트에서는 유홍열PD가 해결사였고 예능에서는 배상석이다. 유홍열PD는 정부의 중요한 행사에 가더라도 전혀 출입을 제지당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행사에도 높은 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고 안내를 받는다. 그의 독특한 외모에 사람들이 주눅이 든다. 배상석PD는 예능국의 자동차 사고, 음주운전,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를 해결한다. 어느 날, 유수열PD가 음주운전으로 걸려 용산경찰서에 연행되었다. MBC의 유명한 PD라고 보내달라고 사정해도, 공갈을 쳐봐도, 죽을 죄를 졌으니 보내달라고 애걸을 해도 끄떡도 않았다. 마지막 수단으로 늦은 밤에 배상석PD에게 연락했다. 연락한지 얼마 안되어 배상석PD가 나타났다. 자가용 쌍라이트를 켜고 크랙션소리를 크게 내면서 경찰서에 나타나더니 조사실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에 나는 '으악'하고 말했다. 당시 고위층만 쓴다는 백색 꽃무늬 골프모자를 쓰고 상의는 고급스런 빨강색 잠바에, 손에는 가죽 장갑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 뭐라'고 소리 지르며 조사실로 들어간다. 몇 초 후 조사실에서 나오면서 또 '뭐라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날더러 "가입시다" 그러면서 나를 끌고 나왔다. 나는 내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가 조사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기에 그렇게 큰소리치던 경찰들이 나를 보낸단 말인가. 지금도 그 방안에서 뭐라고 했는가 알고 싶다.

배상석PD에게 오더를 내릴 때는 다

결정된 뒤에 얘기 해야지, 결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오더했다간 큰 일 날 수 있다.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프로를 할 것 같다'고 말하면 그날 오후에 강원도에서 전화가 온다 "부장님 강릉인데요 섭외가 끝났습니다. 장소는 강릉으로 결정됐구요" 해병대의장대, 염광여고 고적대 등 모든 섭외가 끝났다는 것이다. 세상에. 아침에 회의를 한 것 뿐인데 벌써 섭외가 다 되었다니...

연말이 되면 〈연말특집 10대가수 청백전〉이 있고 최고의 아나운서 변웅전이 사회를 본다. 그해는 심사방법을 시청자와 연예인이 심사석에 앉아 오엑스 표를 들고 손을 올리고 내리면 그 오엑스 숫자를 세어서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심사위원장을 영화배우 김지미 씨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심사위원장이라고 뭐 특별한 것은 없고 그냥 오엑스 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뿐이라서 김지미 씨가 나와서 하기엔 좀 뭇한 것 같았는데 하여간 그렇게 결정이 돼버렸고, 섭외는 배상석PD가 맡기로 했다.

그날 심사원담당은 김우룡PD였다. 행사장에 드디어 김지미 씨가 나타났다. 김우룡PD가 심사방법을 설명했다. '오 엑스판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 뿐'이라고. 심사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지미 씨가 바로 배상석을 찾았다. 심사위원장이라고 해서 인터뷰도 있고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규정도 발표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엑스 판을 들었다 놔다 하는 것뿐이라니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배상석을 빨리 찾아오라"고 난리가 났다 김우룡PD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신다"고

말했다. 그렇게 몇 번을 오락가락하는 사이 광파레가 울리고 〈10대가수 청백전〉은 막이 올라갔다. 카메라가 자기를 비칠 때마다 김지미 씨는 환하게 웃곤 했다. "그래, 역시 배우는 배우구나"

프로그램 녹화가 끝나고 김지미 씨는 배상석PD를 한참 더 찾다가 그냥 돌아갔다.



김명수PD는 미남이다. 배우 하명중을 닮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속마음

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김명수PD는 예능파트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다. 누구보다 코미디언들이 친구처럼 대하는 PD다. 어릴 때부터 영락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음악과 가까이 지냈다. 경희대를 졸업, MBC에 합창단원으로 잠시 활동하다가 1973년 예능PD로 MBC에 입사했다. 음악을 좋아하고 예능파트에서만 일했다. 나중에 MBC 미술센터 사장을 지냈다.

그가 첫 프로로 만든 것이 〈영11〉이다. 영11은 젊은이들을 위한 공개 쇼다. 〈영11〉은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 방청객이 줄을 이었고, 여의도 공개홀은 젊음의 도가니가 되었다. 개그맨 서세원이 〈영11〉을 통하여 스타가 된다. 당시 서세원의 등장은 가히 한국 코미디 판을 바꾸어 놓 정도였다.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웃으면 복이와요〉, 〈mbc 코미디 극장〉, 〈소문만복래〉, 〈명랑 청백전〉 등 수많은 프로를 연출했다. <계속>

28th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동양디지털

1991년 5월 1일 설립되어 방송용 전문 램프 및 Multi Media용 레이저 광 픽업, 광 통신용 모듈 제조용 장비를 필두로 각 방송업계 및 통신업계의 주목을 받아오다 1995년 세계 굴지의 프로세서업 오디오 업체인 studer와의 국내 대리점계약을 통해 Professional Audio System분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디오업계의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넓혀 오면서 방송용 송신기 및 디지털 중계차로 기술력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에 자만하지 않고 성실함을 바탕으로 꾸준한 노력을 거듭하며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 방송 및 오디오 환경의 최신 기술을 습득하여 국내외 방송 및 오디오 업계에 그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양 디지털
방송용 전문 장비 제조 및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상곡빌딩 11층 6호
TEL 02-705-1332-3 FAX 02-705-1334